

해양부, 일반인 항만견학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 등 연간 약 6000명 대상 실시

해양수산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항만의 국가 경제적 위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해운항만사업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 항만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매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양수산교실', '소년소녀가장 초청행사' 등을 열어 해양 의식을 고취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에 대한 홍보는 해운항만 관련자 및 학계에 한정돼 있어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해양부는 기존의 '청소년 해양교육' 프로그램 외에 시민단체, 부녀회, 대학생 등 각계 각층의

시민 약 6000명을 초청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항만의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펴기로 했다.

항만견학은 업무소개 및 홍보 영상물 상영, 선박 또는 차량을 이용한 항만투어, 등대 등 주요 해양수산 관련 시설 견학, 갯벌체험 등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또 각 지방청별로 해당지역의 항만, 수산 여건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방 해양수산청 항무과(항만물류과)에 문의하거나 각 지방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초대 항만위원 11명 내정

해양부, 항만위원추천위원회 심의 거쳐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 설립예정인 인천항만공사의 항만위원회 위원 11명(인천시 추천인사 5명 포함)을 지난 5월2일 항만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정했다고 밝혔다.

항만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항만이용자 대표, 변호사, 회계사, 학계 및 지역인사 등 우수한 자질과 전문 역량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항만위원회는 공사의 경영목표·사업·예산·자금 계획과 사장추천,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투자·출연 등을 의결하는 명실상부한 최고 의결기구로 공사경영권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수행하

게 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연임가능하다. 임명은 공사 설립 전일 해양부 장관이 임명한다.

항만위원 내정자는 김춘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을 비롯하여 홍준호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장, 남홍우 한국선주협회 인천지구협의회장, 이경화 한국도선사협회장, 한준규 황해객화선사협의회 대표, 전일수 인천대 교수, 전준수 서강대 교수, 최원식 변호사, 윤종규 회계사, 최정철 인천 경실련 정책위 부위원장, 이기상 인천항 발전협의회회장이다.